

루터의 종교개혁과 우리

이승구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해마다 10월이면 우리는 종교개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올해는 더 그 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월이 지나 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이 지나 도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면 종교개혁을 기념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큰 희극이 되고 만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 혁을 기념하는 것이 이런 희극이 되지 않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의 존재에 실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합니다. 이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지적하여 적어도 그것들이 이 기념하는 일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에게서 사라지도록 우리 모두 힘 써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루터가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개혁자들에게는 “오직 성경”이 신앙(즉,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과 삶(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의 유일한 준칙이요 권위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형식적으로 성경이 중요했습니다만,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구전을 포함한 전통, 공의회 의 결정들, 이 성, 역사 등)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내용적으로는 성경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지도 가르쳐 지지도 않았습 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 이전과 오늘날 천주교 회와 여러 이단들의 입장은 “성경 + (다른 것)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성경 + 전 승, 이단들에게 있어서는 성경 + 새로운 계시). 이 에 반해서 루터와 개혁자들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따라서 우리들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실천해 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오직 성경 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직 성경”을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라고 표현 하여 왔습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모든 것이 “오직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형식적으로 “오직 성경”을 말하는 그룹과 형식적으로도 “오직 성경”을 따르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둘 모두다 종교 개혁에 반(反)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

니다. 그런데 이 중 더 위험한 그룹은 형식적으로 “오직 성경”을 말하는 그룹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충실하다고 착각하기 쉽기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도 오직 성경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종교개혁에 따르지 않는 것임은 자명한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을 상대적으로만 옳은 것으로 여기려고 하고, 참고서적으로만 취급하는 태도는 참으로 반신적인 태도입니다. 또한 오직 성경을 형식적으로만 말하는 것도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의 원리를 말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직 성경”의 원리에 충실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오직 성경”의 원리를 강조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고 강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는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열심 있는 성경공부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는 공허한 말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과 교회들에게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성경을 부자연스럽게 잘못 해석하는 것은 “오직 성경”을 깨뜨리는 것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루터가 적용한 몇 가지 문제만을 여기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천주교회의 신부였던 그래서 미사를 자주 집례하던 루터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영단문에 드러진 희생제사, 구약의 모든 제사를 다 성취하신 본래적 희

생제사인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근거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제 더 이상 희생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에 충실할 때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1000년 이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재현하는 “피 없는 희생제사”로서 예배한 일이, 즉 당대 교회의 미사로서의 예배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집례하는 사람도 제사장이 아닌 것이지요. 유럽 각 교회당에서 예배를 집례하던 그 사제들이 사실상 사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처음으로 섬기는 자라는 뜻에서 목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물론 루터와 후에 루터파 사람들, 성공회 사람들은 이에 철저하지 않고 사제라는 말과 목사라는 말을 병기했고 지금까지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오직 성경에 충실하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이를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따르는 교회라고 하는 한국 교회 안에 아직도 예배가 일종의 제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일천 번째”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며 그에 근거한 실천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 그런 예의 하나입니다. 예배당을 일컬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예배당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에도 그런 철저하지 않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돌아 보는 일을 “성지순례”라고 표현하는 것도 천주교적 고해 의식에 발원된 잘못된 용어의 사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와 생각에서도 과연 “오직 성경”에 근거한 생각과 언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면 제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종교개혁의 형식적 원리인 “오직 성경”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충실한 생각을 하며, 이제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충실하게 사는 우리들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이 아주 자명하게 선언하는 이런 생각을 왜 루터 이전에는 성도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날 천주교회의 성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16세기까지는 천주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지만 이제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미사도 자국어로 드리고, 따라서 강론도 자국어로 하고, 또한 오늘날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천주교회는 그들이 배운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10:18)는 말씀에 충실해서 예배를 제사라고 하지 말아야 하고, 미사를 인도하시는 분들을 그저 관례를 따라 “사제”라고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에 충실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이를 다음 두 번째 것에 비추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이 용어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인들과 교회 모두가 다 정신을 차려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제사장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신도라는 천주교회에서 만든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보편적 직임으로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왕직을 회복 받아 소유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저 평신도가 아닙니다. 아담이 실패한 이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그것을 잘 생각해서 그 의도를 깨달아(선지자직)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로 나아가는 그 일(제사장직과 왕직)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해서 부족하지만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 나가며 그 배운 바를 깊이 생각하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도 하고(선지자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제사장직),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이 땅의 모든 일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제사장직과 왕직).

여기에 루터와 칼빈이 강조한 소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 일을 받들어 수종드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더 높은 소명”, 세속적 소명과는 다른 “거룩한 소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학생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 속한 모든 분이 이와 같은 소명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거룩한 일을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기록한 것이고, 따라서 그 말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의 학문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바르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직과 왕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 이 땅에서의 구체적인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그 지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공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라도 공동체의 공예배에 성실하지 않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이를 “오직 성경”과 연관시키면 예배 가운데서 주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정황과 관련해서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특히 수요기도회의 참석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수요기도회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풍조가 계속되면 우리들은 성경과 예배를 강조하던 개혁자들의 가르침에서 실질상 멀리 떨어진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둘째로, 오직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 생각할 때 루터와 개혁자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뿐이라고 주장했던 바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루터는 당대의 교회[천주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선행을 하여 은혜에 근거하여 자신들이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보았습니다. 십자가 구속+ 우리가 은혜에 근거

하여 행하는 바 선행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루터처럼 영적인 감수성을 지니고 성령님 앞에서 힘쓰던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할수록 날마다 자신이 하는 것은 늘 부족한 것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의 지도자요 고해신부였던 요하네스 폰 스타우피츠(Johannes von Staupitz, 1460년~1524년 12월 28일)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연구한 결과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행한 것이(solus Christus) 은혜로(즉, “값없이”) 우리에게 적용되어(sola gratia) 구원함을 받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발견하고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복음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 그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죽었으며(그러나 그는 그 자신 때문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를 지고 죽으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것과 특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루터는 이를 “놀라운 교환”(ein wunderbarer Austausch, a wonderful exchange)이라고 표현하였고, 그러니 이중 전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깨달음을 성경과 그에 대한 묵상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천주교회는 여전히 이에 반대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와 우리가 믿은 후에 은혜에 근거하여 행하는 것 둘 다를 중요시하면서 말하고 있으니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천주교인이 아

년 사람들 사이에서도 루터와 개혁자들의 생각이 비성경적이라고, 바울이 말한 바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반어적인 상황입니까? 개혁자들이 강조한 “오직 성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다 파괴하는 일들도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매우 개탄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한 바에 의존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sola fide)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전가됨을 선언하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에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이신 칭의), 이렇게 칭의함을 받은 이들을 평생 감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의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들의 모든 것으로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에로 나아간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soli Deo Gloria).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만이(solus Christus) 우리의 구원의 근거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상위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sola gratia),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sola fide) 감사하여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soli Deo Gloria).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이고, 이것을 “종교개혁의 내용적 원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공로가 될 수 있다고는 전혀 주장하지

않는 그야말로 겸손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에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원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종교 개혁의 형식적 원리하고 하는 “오직 성경”에 우리가 충실하여 생각과 실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는 일의 하나가 그 성경에 찾은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인 “이신 칭의”에 참으로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이 지나고 올해가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는 참으로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이신칭의”에 충실하여, 그 사유와 실천에 있어서 참으로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을 잘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하는 이들만이 루터와 개혁자들의 참된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와 함께 합니다.
(국민일보 9/9일자 발행)



글 | 이승구

현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섬기고 있으며, 총신대학교(기독교교육 전공)와 서울대학교 대학원(가치론과 윤리교육 전공), 그리고 합동신학원에서 공부하였다. 영국 St. Andrews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했고, 귀국 하기 전 Yale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과 수요일 저녁에는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언약교회(www.cvtchurch.org)에서 협동목사로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